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안톤 솔츠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테마인 죽음과 내가 겪은 한국의 장례문화에 대해서 칼럼을 쓰기로 마음 먹은 것은 지난달이었다. 서울에서 있었던 장인 어른의 장례식을 겪고서야 비로소 한국의 장례 의식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장례식에 대한 적이 꽤 있어서 동서양의 장례문화가 당연히 다르다고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장인 어른이 돌아가신 지 2주만에 독일에 계신 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보니 예전에 죽음과 장례 의식에 대해 막연하게 느꼈던 것과는 다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이제까지 경험한 장례식이란 그자 조문객으로서 부의금을 담은 봉투를 부의함에 넣고 쉽지 않은 인사말을 하고 오는 일이었다.

장인의 죽음은 한국의 삶을 제대로 보는 게였을 뿐만 아니라 의례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마음가짐에 대해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장인 어른이 계획에 없었던 심혈관 수술을 받은 뒤 모든 가족의 생활은 바뀌었다.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했고, 위급한 상황이 되자 우리 모두는 황급히 병원으로 불려갔다.

중환자실 앞에는 환자들의 가족이 마련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작은 캠

프라도 같았다. 그자 환자의 호전만을 기다리며 개인의 삶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보호자 가족들의 모습을 처음 목격한 나로서는 참으로 놀라웠다. 독일에서는 면회시간이 정해져 있고, 면회시간 외에는 중환자실 근처에는 있을 수조차 없다. 만약 환자가 걱정돼 중환자실 앞에서 잠

죽음과 죽는다는 것

을 자려고 한다면 병원 관계자들은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해 보호자를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족 중에 누군가를 중환자실에 두고 있다면 병실이 어디던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은 당연했다. 나 또한 아내, 장모님, 매제 그리고 4살배기 아들과 함께 장인 어른의 고통을 나누며 줄곧 병원에서 지냈다. 가끔은 한밤 중에 성급한 발걸음으로 의사들이 다녀가고 나면 우리가 머물고 있던 작은 캠프에선 누군가 흐느끼 울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우리 모두는 중환자실에 불려 들어갔다. 심장 박동이 멈추면서 어떻

게 한 사람의 생이 사라져 가는지를 보게 됐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의사가 그의 죽음을 확인한 뒤로는 모든 그것들이 순식간에 진행됐다. 죽은 육신은 장례식장으로 곧바로 옮겨졌고, 30분 후에는 우리 모두 장례식장 사무실에 앉아 관과 조화, 조문객을 위한 음식 등 장례절차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들은 주변에서 '강남 스타일'을 부르며 웨딩벌떡 뛰놀다가 할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왔다. 당혹스럽고 황망스런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되는 동안 참으로 아름다운 장례식이란 생각을 안 할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의 정성스런 문상으로 더욱 큰 감동을 받았다.

결혼 이후 8년 만에 다시 보는 친지들이 정말 반가웠다. 먼 곳에서 이쁜 새벽 시간 까지 와서 조의를 표하는 것을 보며 내 스스로가 가족과 한국 사회의 일원임이 느껴지고 자랑스럽게까지 여겨졌다. 요즘 한국의 장례식이 상업화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느껴본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깊이를 깨달았다.

중환자실 앞에서 면회시간을 기다리며 보낸 병원 '캠핑'은 내 한국 가족과 함께 떨어지지 않고 보낸 시간 중에 가장 같았으며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다. 마침내 장모님께서 장인 어른의 시신이 화장터로 들어가자 참아오던 울음을 터뜨렸다. 장모님을 안고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 편찮아질 거라 말씀드렸다.

그 순간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서 확고히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며,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 아래는 내 아버지의 장례식 부고문과 초대장을 쓰는 내 어머니 옆에서 마치 딸처럼 듣고 있다. 모든 것은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이겠지만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그 감각은 면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로 오셨다. 이제껏 한국의 모든 장례 의식이 다소 경직되고 형식적이진 않나라는 생각이었다. 우리의 경우도 계산적으로 대하는 장례식장의 일부 업소의 태도가 내심 못마땅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장례식이 거행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GO 칼럼



박상하

사회적기업 2.0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의 본래 목적이 노동통합과 사회통합이란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 창출정책 수단으로 인식한 측면이 강하다 할 수 있다.

1970년대 서구 유럽에서 태동한 사회적 경제 활동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나 사회적 배제 문제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사회적 노력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사회적기업은 본래 자본이 없거나 기술이 부족한 아이디어가 사회 혁신적인 모델과 결합하여 형성된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결사체적 비즈니스 형태로 운영하는 풀뿌리운동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1차 5개년 계획이 일자리 중심의 양적 성장으로 대변되는 사회적기업 1.0시대였다. 향후 2차 5개년 계획은 질적성장과 균형을 유지하는 사회적기업 2.0시대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회적기업

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종료되는 5년 후에는 자립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공공시장 확대와 판로 개척 및 조세감면 등의 다양한 지원책들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한시적인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최근 지방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화전략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의 외연이 확장되는 삼리적 기대효과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제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경제라는 광범위한 제3섹터 영역을 이어르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지역경제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과 구

조를 요구받고 있다.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경제 패러다임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역할에 의해 좌우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아이템 개발과 사회혁신적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하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구 유럽의 성공한 사회적기업 모델들에서 발견되는 공동점은 신뢰와 네트워크로 규정된 그 지역의 사회자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적기업은 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며 우리를 스스로의 사명과 철학에 얼마나 철저하게 다가가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다.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기업 2.0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은 사회자본의 축적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광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은 누구이며 무엇을 생산하는지 알아보고 더 한층 나아가 제품을 구매해주고 격려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강화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새로운 제3의 경제주체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장〉

기고

중국인 관광객 1억명 시대를 맞아



이기환

길을 돌리고 있다. 2009년에 4765만명에 불과했던 해외관광객이 2010년에는 우리나라 국민 수보다 많은 5738만 명으로 늘었고 2011년에는 7035만명으로 경총 뛰어 2020년에는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대중관광이 시작됐고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국내 관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휴양·휴식·크루즈 등 질적으로 고급화된 관광이 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인의 관광행태 변화는 전남의 관광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제 단체관광보다 개별관광(FIT)이 늘고 있으며 도시문화가 발달한 지역보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 레저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음식이 발달하고 역사문화유적이 많은

곳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트렌드에 딱 들어맞는 곳이 바로 전남이다.

특히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전남이 널리 홍보되었을 뿐 아니라 중·일간의 국토 분쟁으로 야기된 반일감정이 중국인의 발길을 전남으로 돌리게 하여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내년에는 중국 상해에서 출발한 중

대형 크루즈선 30여 척이 6만여명의 관광객

을싣고 전남 해안에 기항하기로 예정돼 있고,

중국 내륙에서도 정기성 전세기를 무안

공항에 취항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이는 전남도가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F1 대회와 2013년 4월부터 6개월간 개최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적인 대형 행사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전남도는 2219개나 되는 섬들을 저마다 특성 있는 관광지로 가꾸고, 잘 보존된 생태환경과 전통문화예술을 휴양·휴식형 관광기반으로 구축해 나가고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한편 가장 시급한 과제가 쇼핑시설인데 최근 국내 굴지의 기업이 순천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서 사후면세점과 곳곳에 들어서고 있어서 해외관광객 수용태세 구축에도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중국인이 누리고 있는 소득증대와 여가시간이 전남관광 발전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전남도가 기반을 탑탄하게 구축해야겠지만, 지역민들도 제2의 관광기반이라고 불리는 청결과 친절로 해외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쪼록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리다 맞이한 이 기회를 민관이 합심하여 살려낸으로써 일자리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남도 관광정책과장〉

차량 블랙박스 없었다면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릴 뻔

사고가 나자 가입한 보험사에서 현장에 나와 조사를 하고 그렇게 보험처리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했다. 그런데 사단이 났다. 상대 운전자 쪽에서 가해자는 필자와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필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생떼를 쓰는데 도리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경찰은 우선 블랙박스의 유무를 확인했다. 필자의 차량은 오래된 소형차량이라 블랙박스를 달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한 순간 당황했다. 차치 잘못하면 가해자로 몰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퉁당 거렸다.

그런데 정작 필자를 구해준 것은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였다.

그 차량에서 수거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상대측 운전자의 잘못이 그대로 음성과 함께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며칠간의 경

찰 조사 결과 필자는 피해자, 가해자는 상대 운전자로 판명이 났다. 보험사에서도 2대 8이라는 과실비율(이것도 억울하지만)을 계산했다.

블랙박스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깨달았다. 간혹 TV에서 블랙박스 사고영상이 나오면 남의 일이거나 했다. 정작 내자신에게 그일이 닥치고 보니 당장 블랙박스를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글을 읽는 독자들께서도 블랙박스를 꼭 부착하길 바란다.

▲임수영·광주시 남구 방림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오피니언

시설

인사대탕평 인수위 인선부터 실행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부터 '대탕평 인사'를 통해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역설해온 인사 대탕평과 국민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인수위로부터 첫 단추를 끊을 것이다.

황우여 대표는 "이 시대의 정신이 국민통합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탕평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이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심재철, 정우택 최고위원 등도 인수위 인선부터 내년 2월 말 박근혜 정부 출범 시의 내각인가가 시급석이 될 것이라며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실 인수위의 역할은 업무 인수, 새 정권의 준비 작업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25명의 인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무현 정권이 인수위 당시부터 '코드인사'로 논란을 쌓고, 이명박 정부도 설익은 구성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인수위부터 박 당선인이 제시한 대탕평의 원칙에 걸맞은 능력과 신뢰를 갖춘 인물이 등용되기를 기대한다. 거기엔 지역적 안배가 필요해 이뤄져야 한다. 박 당선인의 향후 인사를 가능하는 잔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공요금 인상은 그동안 정부가 물가를 높려놓았던 측면이 있지 않다. 또 원자재 가격 반등 시차가 대개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인상 요인도 있다.

하지만 통계청 조사처럼 인구 6명 중 1명이 연간 1000원 원도로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실집 살기가 더욱 고통받게 된다. 특히 광공요금 인상은 그동안 정부에 대한 1000원으로 인상되는 등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27일부터 노선별로 100~400원씩 오른다. 특히 택시요금은 전국 16개 광역 자치체 가운데 13곳이 인상안을 제출했고, 광주 등 3곳은 내년 초 인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공요금 인상은 그동안 정부가 물가를 높려놓았던 측면이 있지 않다. 또 원자재 가격 반등 시차가 대개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인상 요인도 있다.

하지만 통계청 조사처럼 인구 6명 중 1명이 연간 1000원 원도로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실집 살기가 더욱 고통받게 된다. 특히 광공요금 인상은 그동안 정부에 대한 1000원으로 인상되는 등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27일부터 노선별로 100~400원씩 오른다. 특히 택시요금은 전국 16개 광역 자치체 가운데 13곳이 인상안을 제출했고, 광주 등 3곳은 내년 초 인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이번 인수위부터 박 당선인이 제시한 대탕평의 원칙에 걸맞은 능력과 신뢰를 갖춘 인물이 등용되기를 기대한다. 거기엔 지역적 안배가 필요해 이뤄져야 한다. 박 당선인의 향후 인사를 가능하는 잔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과 생명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다. 중병에 걸려 생존의 끈을 잡으려는 이들의 절박한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따라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외국에 건너가 줄기세포 시술 받는 사람들을 충분히

개인화된 시술을 받고 있다.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수년 전부터 '회춘'과 체력 회복을 위해 중국이나 일본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용이나 성형 목적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주의 깊은 관심을 통하여 민감한 시기의 민심을 안정시켜야 할 때다.

간호와 생명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다. 중병에 걸려 생존의 끈을 잡으려는 이들의 절박한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따라서 생명